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抱川지역의 정론지로서 더욱 발전하길



오병익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먼저 포천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포천신문이 재창간한 지 네 번째 물을 맞이한 것을 1천만 경기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여론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해주신 최호열 사장님을 비롯한 포천신문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신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지역주민의 자율과 창의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시대인 21세기를 열어 가는 지금 무엇보다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자치시대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이 관심을 갖고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에 직접 참여할 때만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며 이렇듯 지방자치

의 성공을 위해서는 진정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담아낼 수 있는 지역언론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작지만 효율적인 의정구현과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속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생동감 있는 사실과 양질의 정보만 충실하고 진솔하게 담아 주민들에게 한층 만족할 수 있는 포천지역의 정론지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포천신문」재창간 4주년을 축하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포천신문」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抱川新聞은 지역사회 자부심



이상만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추진
특별위원장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언론사로서

국화꽃 향기가 그윽하게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의 정론지로서 포천신문이 재창간 4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포천신문은 우리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지역 구석구석 미담과 생생한 정보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지역발전에 비전을 제시하고도 하고, 시정을 감시 감독하여 건실한 비판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포천신문이야말로 우리시의 보배라 할 수 있습니다.

타향에 사는 출향민들도 포천신문을 통해 고향소식을 생생히 전달받는 것이 크나큰 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

원장으로서 포천시 5개면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관리, 지원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훈한 사랑방으로서 때로는 엄격한 시어머니 역할도 하면서 주민 화합과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데 있어서 크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포천신문에 대해 기대가 몹시 크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여 더 많은 시민들을 독자층으로 끌어들이고 사랑받는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음지를 밝히는 역할 충실하길



최대중
포천시의회위원장

언론문화의 발달과 시민의 지적 욕구 충족을 위해 공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오신 포천신문의 재창간 4주년을 15만 포천시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제를 신속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 건전한 비판과 함께 발전적 대안제시로 지역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것은 지역언론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 동북부의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신도시개발, 전철7호선 유치사업을 비롯한 대단위 정책사업, 영상단지조성 및 산정호수·백운계곡을 벨트화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선진 시민의식 함양 등 많은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15만 시민과 함께 산적한 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포천이 경기 동북부의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포천신문이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경기북부 시민의 눈과 귀의 대표적 언론인 포천신문이 「주인의식(主人意識)」을 가지고 「정론직필(正論直筆)」하여 「문화창달(文化暢達)」의 숭고한 사훈(社訓)을 위하여 더욱 더 정진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활화산과 같이 타오른 힘이 되주시고 보다 수준 높은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정의를 실현하는 참 언론이 되기를 거듭 기원하면서 포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신문은 時代相 반영하는 거울



이창모
의정부시의회 의장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맞이하여 40만 의정부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00년 포천신문이 재 창간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기북부지역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하여 왔을 뿐 아니라 시민 정서 함양과 선진 시민으로서의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포천신문사 임직원 여러분! 무릇 신문이란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거울이 얼마나 깨끗하고 바르냐에 따라 그 시대의 현상과 문제를 정확히 비출 수 있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시대의 흐름조차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언론인인 포천신문사도 시민에게 각종 현안 및 문제에 관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건전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단합을 위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시의회를 비롯한 시정진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여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온 지역문화 창달의 기수로서 지방언론을 주도해온 포천신문사의 역할과 사명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포천신문은 우리지역의 건전한 언론문화를 밝혀주는 등불로서 시민들에게 한층 더 사랑 받을 수 있는 신문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며, 다시 한번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市民들에게 사랑받는 언론 되길



이상원
양주시의회위원장

포천시는 물론,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지역의 대표 지역정론지인 포천신문의 재창간 네번째 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발행인임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세계적으로는 지방화 시대이며 국내적으로 지방자치가 자리 잡아 정착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국가와 국가 개념의 벽은 이미 무너지고 회사의 제품이나 지방의 특화가 세계에서 통하는 글로벌시대인 것입니다.

이렇 때일수록 지방의 경쟁력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언론의 역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끊임 없는 노력과 지역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해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주민자치 실현에 커다란 힘이 되주시고 보다 수준 높은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포천신문 재 창간4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 정론지로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임직원 여러분과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신문은 抱川의 역사 기록



김창중
수필가
포천신문 지문위원

「포천신문」이 지령 280호를 넘었다는 사실은 「우리신문」의 저력을 말해주는 것 같아 가슴벅차옵니다.

「현대시감상」의 집필과 「포천을 빛낸 인물」란 기획취재를 통해 여러 번 결을 찾았던 것 해였습니다.

「포천이야기」를 연재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마을의 이런 이야기도 실어 주시고 저런 이야기도 실어 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포천이야기의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현대시감상」으로 경기북부지역 시민은 물론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포천을 빛낸 인물」은 포천 출신이면서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

들에게 고향에 대한 애정을 다진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의 사명」과 지방언론의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어려움을 겪어 온 「포천신문」가족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한 취재활동」, 「지방문화와 마을소식」의 정령으로 오랫동안 땀 흘렸듯이 앞으로도 더욱 친근한 입과 귀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포천신문」은 내고향 포천의 역사의 기록으로 영원히 꽃피울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층 더 사랑받는 지역정론지 기대



김덕기
의정부경찰서장

그동안 경기북부지역 발전과 지역정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포천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재창간 4주년에 즈음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포천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나 기존 신문이 다룰 수 없는 경기북부지역의 독자적인 정보를 다양한 독자에게 공급하고 차별화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찰도 주민이 진정 원하는 경찰, 시민과 함께 하는 든든한 의정부경찰이 되기 위하여 10대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 현관을 경찰홍보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환경에서 수요자

중심 즉, 민원인 중심의 환경으로 전면 리모델링 하여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편히 쉬고, 편히 보고, 편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등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로 거듭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경찰은 주민이 진정 원하는 경찰이 되기 위하여 10대 과제를 더욱 더 성실히 실천해 나가길 것입니다.

아울러 포천신문도 경기북부지역의 건전한 언론문화를 주도하는 구심점으로써 시민들에게 한층 더 사랑받는 지역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포천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京畿北部지역을 밝히는 등대 역할



변진수
포천교육청 교육장

4년 전 오늘은 포천신문이 재창간을 하게 된 뜻깊은 날입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는 오로지 포천신문 각 분야에 종사하는 임원 및 종사자들이 땀으로 획득한 자량활만한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 및 종사자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시·군정의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물론 지역주민의 정감 있는 매체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포천신문에 종사하는 직원 여러분과 재창간의 의의를 다지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또 오늘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일의 발전을 겨룰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고해 보면 포천신문은 4년 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과 방황,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포천 시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정도를 밝혀주고 바른 사고·비판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미래의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뉘를 감히 담당하고자 나선 포천신문 임원진과 종사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문화와 감성의 만남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슬기와 깨우침을 얻도록, 풍부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 경기 북부지역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포천신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따뜻하고 즐거운 기사로 희망과 제공



이성덕
포천로타리클럽회장

포천로타리클럽 설립 이성덕 회장

포천시에 사무실을 두고 포천시를 비롯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 북부지역을 취재권역으로 하여 지난 2000년10월25일 재창간한 이후 4주년을 맞이하여 포천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불철주야 열심히 뛰는 포천신문 최호열 발행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포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 10월10일 포천로타리클럽과 포천의료원과 포천신문사가 함께 한 「외국인가족 한마당」은 머나먼 이국 땅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모 형제와 떨어져 생활하는 외국 근로자에게는 따뜻한 한국인의 정을 뽐낼 수 있게 한 대단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날 참석한 외국인들은 포천로타리클럽에서 제공한 점심식사를 아주

맛있게 하고 포천의료원에서 준비한 시설에서 마음껏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포천신문사에서는 홍보와 이미속무용단을 초청해 즐거운 한국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외국인들이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서로 봉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정도를 지향하면서 따뜻하고 즐거운 기사로 가득 차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주는 포천신문이 되기를 포천로타리클럽 회원들은 두 손 모아 빌면서 한편 든든한 봉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抱川市 경제시책 보도 하길



윤이웅
동성사 대표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역에서 중소기업 운영을 하는 기업으로서 포천신문은 늘 다정한 벗이 되어 주었고 기업인들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재창간 4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더욱 지역의 기업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신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포천신문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천시의 기업인을 위한 시책을 대해 좀더 상세하게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들은 정부정책이나 기업의 흐름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포천시의경제시책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 포천시의 경제정책을 시기적절하게 보도하여 주시면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기업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내용을 보도하여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구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정신을 널리 알려 서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호열 발행인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